

## 제52대 한국언론학회

### 학술표준분류 개정 추진 사업 보고서

####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행 국가 학술표준분류에서 우리 학문 분야의 중분류명은 ‘신문방송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방송학’이라는 명칭은 신문과 방송이 주요 대중매체였던 시기의 학문적·매체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오늘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 대상과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관련 학문 분야는 1960년대 이후 전통적인 신문학에서 방송을 포함한 매스커뮤니케이션학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이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연구 영역 역시 전통적인 신문·방송 및 저널리즘 연구를 넘어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 광고·PR, 정치커뮤니케이션, 건강커뮤니케이션, 휴먼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AI와 알고리즘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연구 영역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학술표준분류체계에서도 ‘신문방송학’이라는 중분류 아래 언론학·언론정보학, 광고·홍보학, 영상학, 커뮤니케이션학, 출판학 등이 소분류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분류 역시 뉴미디어, 미디어산업, 매스커뮤니케이션, 휴먼커뮤니케이션, 정치커뮤니케이션, 조직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신문과 방송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 명칭과 실제 학문 공동체의 연구 영역 및 학문적 정체성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언론학회는 변화된 학문 환경과 현재의 연구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중분류명을 현행 ‘신문방송학’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은 미디어 기술·플랫폼·콘텐츠·산업 등에 관한 연구와 인간의 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함께 포괄할 수 있으며, 현재의 연구 현실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등장할 학문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적절성이 높다. 또한 국내 대학의 관련 학과와 전공에서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명칭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학문 공동체 내 수용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주요 추진 경과

한국언론학회는 학술표준분류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2월 학술표준분류 TF를 구성하였다.

- 1) TF 구성: 정성은 회장, 민영 부회장, 최지향 총무이사, 심민선 연구이사, 김현석 연구이사
- 2) 학술표준분류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2026. 2. 27. (김현석 [서울대] 발제: ‘신문방송학’에서 무엇으로? 현행 학술표준분류체계의 문제와 과제)
- 3) 미디어 관련 학회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6. 5. 8.
- 4) 관련 학회 및 학문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분류명을 ‘신문방송학’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으로 변경하는 방안 마련
- 5)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11개 학회 동의 확보: 2026. 8. 26.~8. 31.
- 6) 학술표준분류 개정 수요 제안서 집행부 승인 및 한국연구재단 제출: 2026. 9. 7. (제안서 대표집필, 심민선 연구이사)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광고학회(회장: 성용준),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이세진),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모정훈), 한국방송학회(회장: 강재원),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옥태), 한국소통학회(회장: 송인덕),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최우정),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이건혁),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종하),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신동진), 한국PR학회(회장: 장정헌) 등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11개 학회가 동의함으로써 학문 공동체 차원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 다. 주요 개정 제안 내용

이번에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개정 수요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분류명 변경
  - 현행: ‘신문방송학’
  - 개정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 중분류명 변경에 따른 관련 소분류명 변경

- ‘신문방송학일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일반’
- ‘기타신문방송학’ → ‘기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이번 개정은 우선 학문 분야 전체를 대표하는 중분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에 직접 연계된 소분류 명칭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라. 향후 일정 및 과제**

한국연구재단은 제출된 개정 수요 제안에 대해 2026년 9~11월 1단계 검토, 2026년 12월~2027년 1월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2027년 2~3월 2단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2027년 4월경 발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학술표준분류 관련 시스템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 작업은 우리 학문 분야의 명칭을 현재의 연구 현실과 학문적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중분류명 개정을 바탕으로 현재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영역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분류와 세분류 체계 전반에 대한 후속 개정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및 연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변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 지형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술분류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